

# 면암(勉庵)의 정신을 배우자

우리고장을 흔히 표현할 때 충절과 선비의 고장으로 많이들 표현한다. 이런 역사적 자부심을 뒤로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 조금이라도 그 의식을 살릴 수 있다면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해 본다.

현재를 살고 있는 지도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일신의 출세와 안락을 찾아 수없이 변절을 하고 또 이용하고 속이고는 한다. 그렇게 하고도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배신과 간교한 행위가 출세하는 지름길이라는 선망에 대상이 되고 이것이 더 확장되면 부정부패로 변하여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 같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제는 도의적인 처신의 기준마저도 불분명하여 계층과 지역을 막론하고 윤리와 도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저변에까지 만연되어 올바른 윤리의식의 퇴폐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시대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시기인

지 되돌아보는 심정으로 포천출신으로 역사에 길이 그 정신과 업적을 남기신 화서학파의 주류이신 면암 최익현 선생의 모습을 주마간산 격으로 되새겨 본다.

우리 역사상 절기(決起)있는 의로움으로 생을 살다 가신 선인으로써 조선태백의 면암(勉庵) 최익현 선생을 배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분은 지부복귀상소(持斧伏願上疏)라 하여 옆에 도끼를 지니고 절문 앞에 꿇어앉아 상소를 올리는 한마디로 상소를 가납하지 않으면 도끼로 죽어 달라는 목숨을 건 의사표시를 몸소



이희용  
포천역사연구소 소장

보인 분들이다.

특히 면암 선생은 국운이 기울어 가는 조선의 마지막 역사의 고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끝없는 좌절감을 느꼈던 지조의 선비였다고 할 수 있다. 큰 의리(義理)와 충의(忠義)를 몸소 행동으로 보인 유림의 거벽 고종의 생부요 살아있는 대원군으로 전하의 독선과 위세를 남김없이 휘두르던 대원군에게 맞서 그의 실정을 따져 상소들과 뜻 있는 사람(士林)들에게 참 선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한 주인공이 바로 포천의 자랑 면암최익현 선생 이시다.

면암 선생은 단발령에 반대하여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고 상소하여 우리의 의복의 복원을 주장함을 물론이신 면암 최익현 선생의 모습을 주마간산 격으로 되새겨 본다.

확신하게 되자 조선인끼리 싸울 수는 없다고 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의병의 해산을 명하고 서울로 압송된다. 그 후 조선통감부는 최익현을 조선 땅에 두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약식으로 재판하여 대마도(對馬島)로 강제압송(押送)하여 유배(幽閉)하게 된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대마도에 도착하면서부터 '이미 이 지역에 이르러 너희들의 음식을 먹고 너희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의(義)가 아니라 지금부터 단식(斷食)하겠다'라고 하면서 임금의 분발을 촉구하는 직언을 하기에 이른다.

일어나 북두를 우러르고 임금님 계산 곳에 절하고(起跪北斗拜瓊樓), 흰 머리 오랑캐의 옷자락에 보한 눈물 쏟아져 흐른다네(白首鬚衫淚滿流), 만 번을 죽는 다 해도 부귀를 탐하지 않으리(萬死不貪秦富貴). 평생을 읽은 글이 노나라의 춘추라네(一生長讀魯春秋). 이것이 면암 선생이 남긴 마지막 유시(遺詩)인데 마지막 구절 '평생을 읽은 글이 노나라의 춘추라네'라는 대목에서 서 가장 바른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공존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면암의 정신을 그의 고향인 포천에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청양 정을 제 주도 흑산도 등의 다른 지역에서 더 그 뜻을 기리니 어느 사람은 면암 선생의 고향이 포천이 아니라 주장까지 될 정도로 우리의 무관심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속히 그분의 뜻을 기리는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갈수록 세상은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다. 사회의 대부분이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고 돈이 양면이 부유함이 권력이 되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정의와 절개를 지켰던 선비의 고장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고장을 이끄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자신의 행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특유의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권력을 좇고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다보면 자칫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역사 속에 변함 없이 흐르고 있는 의로운 정신을 되살려 배우고 실천하자. 자신의 인위를 범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는 실수를 반복하는 누를 더 이상은 범 하지 말자.

포천은 시민만 불쌍한 지역이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자존심 지키는 고장이라는 말을 들게 만들어 가자. 이제 더 이상 힘을 허비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바른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공존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 운천에서 온 편지

## 성공한 사람들이 故郷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나의 작은 바램이 소망이 있다면 영북지역에 아니 포천지역에 농업·공업·상업 등 모든 것이 발전하여 생산성이 대단한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 지역학교로는 직원들은 근무하겠다고 찾아오고, 학생들은 공부하러 서로 오려하는 명문학교로 이름을 날렸으면 하는 바램이고 사람들이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며 인정받고 일 땀 죽고 종교활동, 체육활동, 깨끗한 도시관에서는 지식을 쌓고, 청소년 문화활동, 가끔은 산과 들로 가족과 소풍도 가면서 여가선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인지 근무 불리도 여럿이 모여 잡자불이나 하던지 매일 몇번 한밤에 산을 찾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물며 노인들조차도 일거리가 있어서 손주들 과자 사줄 돈과 용돈을 벌었으면 좋겠으며 젊은이들 애엔 존경받고 젊은이들은 노인, 연장자들에게 칭찬과 귀여움 받는 그런 아름다운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다.

하물며 노인들조차도 일거리가 있어서 손주들 과자 사줄 돈과 용돈을 벌었으면 좋겠으며 젊은이들 애엔 존경받고 젊은이들은 노인, 연장자들에게 칭찬과 귀여움 받는 그런 아름다운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다.

포천시에 살면서 시장이나 주민 활동이 많이 실려있는 지역신문을 보면서 애당초를 불러 일으켰을 때 더욱 좋으리라. 모든 공무원들이 각종 기관과 조합직원들이 시민과 조합원들이 불편한 것, 어두운 곳, 괴로운 것, 병들어 아파 오는 사람이 없는지 구석구석 찾아보고 위로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주고 열심히 일해주는 공복자와 책임자들이 100% 책임졌음 좋겠다.

일 잘하고 묵묵히 헌신봉사하는 사람들, 충고 배고픈 이에게 따뜻한 거와와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가 포천에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영북면사무소 앞에 한군데 있는데 음식

맛있고 성심성의껏 대접한다고 소문이 나 있고 칭찬이 자자하지만 난 한번도 먹으로 거거나 봉사하러 가지 않았다.

난 노인 분들이 자유롭게 사 드시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 한 주에 2-3번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고 한다. 참 고맙고 감사 한일인데 배고픈 설움을 어디다 비길까나. 차후에는 충복심을 갖고 봉사하러 가야 겠고 잘되길 기원해야겠다.

간간 운천중앙농이며 시장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이며 2~3층 건물 후면에 다 쓰러져 가는 스텔트와 기와집이며, 잡초가 우거져있고 일부 비닐 땅에 고추와 푸성귀 농사하는 광경을 보는데 물가, 건축비가 높아져, 아니면 소유주가 타지에 있어서일가 너무나 빈집과 공간이 많고, 집포 등이 매물이 나오도 해볼 사람조차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라도 하여 큰 폭풍을 만들며 포천이며 영북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 생계와 여유 돈을 만들 수 있는 생산업체와 명문학교가 여러 개 유치되어야 하고 또한 뜻 있는 사람들도 동참해야 한다. 타지에 가서 큰 돈만 토크바나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기근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보면, 설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직은 지역출신 중에 명망 있고 재력이 있으며, 애당초이 돈독하고 사업수완이 탁월한 뜻이 있는 분이 어디 있을 법도 한데 들리는 소리가 없다. 이니면 찾아야 하고 권유해야 동기유발이 될 수 있고 상부상조되고, 우리2세대들이 잘살 수 있는 기회 반도 세워줄 수 있음을 알고 뜻 있



손영배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영정사 순명배부사무소 소장

는 분들이나 우리가 솔선 해야한다. 바디가 있어야 해방이라도 해 볼 수 있으리 믿는다.

많은 제우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곳에 살아 정착한 뜻이 아니고 많이 배우고 익혀서 고향에 돌아와 발전의 주역이 되라는 것인데 아직은 회귀의 기미가 없기만한데 하루속히 고향을 떠난 지인들이 속히 돌아와 뜻을 같이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길 바란다.

아름다운 포천, 위대한 대한민국이 포천이며 영북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 생계와 여유 돈을 만들 수 있는 생산업체와 명문학교가 여러 개 유치되어야 하고 또한 뜻 있는 사람들도 동참해야 한다. 타지에 가서 큰 돈만 토크바나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기근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보면, 설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직은 지역출신 중에 명망 있고 재력이 있으며, 애당초이 돈독하고 사업수완이 탁월한 뜻이 있는 분이 어디 있을 법도 한데 들리는 소리가 없다. 이니면 찾아야 하고 권유해야 동기유발이 될 수 있고 상부상조되고, 우리2세대들이 잘살 수 있는 기회 반도 세워줄 수 있음을 알고 뜻 있

## 자유기고

### 아들의 외출

동해안. 오늘은 가족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기습 설레며 떠났던 여고시절과 달리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 내겐 처음이지만 가슴이 뿌듯하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거의 쉼 없이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국방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오는 11월 입대를 핑계로 여행계획을 세웠다.

격정을 뒤로 한 채 각자 짐 보따리를 챙겨 차에 오르고 자식을 만큼은 배우고 싶은 것 다 가르치고 싶은 일념으로 달려온 세월

을 뒤돌아보니 벌써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되고 함께 한 시간은 없었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과 살아 보겠다고 억척스럽게 노력해 온 세월이 스쳐 지나간다.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군대란 옛날의 병역의무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국민의 4대 의무의 사명감을 갖으라고 겹겹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웬지 허전한 마음이 감출 수가 없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가을 길을 만나고 동해안에 도착하니 역시 청정해역이다. 마음도 상쾌하다.

철썩거리는 파도와 파도가 지나간 자리의 남편과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이 달음질 하는걸 보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좋은데 왜 여태껏 시간을 만들 수 없었을까? 아쉬움 또한 나를 슬프게 한다.

심상한 회와 케익으로 사랑하는 나의 딸 생일 파티를 외쳐보지만 행복이란 만들어지게 아니고 만들어 가는게 현실이라는걸



박복준  
주부영어재민 이사

실감하게 했다.

통일전망대 관람, 전쟁기념관, 화진포에 길일성별장 철책선의 현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강원도의 아름다움 절경에 내 마음 싣고 아들의 병역의무와 딸의 생일 축하, 사랑하는 나의 남편의 건강을 실어 높은 파도와 청정해역의 일애 마음 싣고 나누며 베풀며 인생사 살아가려 합니 다. 내 아들의 입대를 축하하며 동행! 사랑한다.

# 전기안전관리.....!!

##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 안병호

-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
-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 최첨단 측정 장비 보유
-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 및 A/S 대책회의



변압기 정밀점검

고객의 전기시설물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기업

회사명 :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4 FAX : 031)541-9115